

김치온 교수 '돈오대승정리결' 역주 출간

돈점논쟁 다시 불 지폈다

<頓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올해의 학술상으로 선정



김치온 교수

한국불교에서 돈점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며, 예민한 주제다. 1980년대 초반 성철 스님이 <선문정조>에서 보조지눌(1158~1210)의 '돈오점수'를 비판한 것을 계기로 논쟁이 벌어졌다. 돈점논쟁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8세기 후반 티베트 수도의 라사에서 있었던 '삼예사의 논쟁'이다.

삼예사 논쟁은 단계적 해탈론(漸修)을 주장한 인도의 학승인 까말라설라와 즉각적 해탈(頓悟)을 주장한 중국 황왕의 선사 마하연 사이



'돈오대승정리결'

에 벌어진 논쟁을 말한다. 이 논쟁에서 까말라설라가 마하연 선사에 승리하면서 티베트 불교는 인도불교의 강한 영향력 안에 놓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삼예사 논쟁에서 중국 선종의 입장을 대변한 <돈오대승정리결>이 김치온 진각대학원 교수에 의해 역주되어 최근 책으로 출판됐다. 이에 따라 돈점논쟁이 다시 벌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은정불교문화원(이사장 자승)은 10월 25일 김 교수를 올해의 은정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진흥원은 "이번 학술상 선정은 티베트에서 일어났던 돈점논쟁에 대한 중국 선종 측의 자료에 대한 연구라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티베트 측 자료가 많이 보고돼 있기는 하나 중국 측 자료는 주목받지 못했다. 김치온 교수가 역주한 <돈오대승정리결>은 중국 측 입장을 재인

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중국 돈황에서 출토된 한문문헌 <돈오대승정리결>은 삼예사 논쟁의 과정을 서술한 '서문', 인도불교측의 질문과 그에 대한 마하연의 답변을 담은 '문답', 그리고 마하연이 티베트 국왕에게 올린 '진상문'으로 구성돼 있다.

김 교수는 번역과 함께 꼼꼼하게 주(註)를 달았다. 또 부록으로 '마하연의 선법 연구'와 '까말라설라의 점수론'이라 할 수 있는 '광석보리심론 역주'를 보태 삼예사에서 있었던 돈점논쟁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교수는 "부처님 말씀들을 차례로 지관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때 접한 것이 마하연의 '불사불관(不思不觀)'이라며 "마하연은 '생각하지도 말고 관찰하지도 말라'고 했다. 마하연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겨 까말라설라의 마하연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봤다"고 설명했다.

마하연은 "흰 구름도 검은 구름도 하늘에 있으면 장애가 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여 천상

에 가는 것도, 악을 행하여 지옥에 가는 것도 다 같이 윤회 속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불성을 얻는데 똑같이 장애가 된다. 윤회로부터 해탈하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 것도 궁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마하연의 주장에 까말라설라는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것도 궁구하지 않고서 해탈할 수 있다면 실천한다면, 졸도했을 때에도 해탈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방편과 반야의 지(智)에 통달하고, 진리를 잘 관찰해 일체 법이 무자성(無自性)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까말라설라의 주장처럼 방편과 반야의 지(智)는 진리를 잘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것인지, 마하연의 주장처럼 불사불관을 통해 일체의 망상을 여인다면 본래부터 존재하는 참된 성품과 일체종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이러한 의미에서 <돈오대승정리결>은 논쟁을 종결하는 것이 아닌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일 것이다. 수행을 생각하는 각자의 결연한 결행과 실행 속에서 그 결과가 나타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나 기자

진주 월명암 불상 등 보물 지정 예고

불교문화재연구원, 2008년 조사서 확인된 문화재 17건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범하)가 2008년 경남 서부지역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사업을 통해 확인한 17건의 문화재가 보물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경무)은 10월 26일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17건의 문화재를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날 보물 지정된 문화재는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과 진주 응석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진주 청곡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진주 청곡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권속 일괄, 거창 심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통영 안정사 영산회괘불도, 고성 육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고성 윤흥사 관음보살도, 하동 쌍계사 괘불도, 하동 쌍계사 감로왕도, 합천 해인사 감로왕도, 진주 삼선암 동종, 통영 안정사 동종, 거창 고전사 동종, 하동 쌍계사 동종, <선종영가집>(언해)이다.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17세기에 조성된 불상이다.

문화재청은 "상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발원문에 조각승의 이름 위에 상원(上員), 부원(副員), 행반(行班) 등 조각승의 역량이나 경력에 따른 직위를 명시돼 있어 당시 조각승의 서열이나 체계를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당시 조각승의 서열이나 체계를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합천 해인사 감로왕도'는 18세기 초반에 제작됐다. 감로왕도는 조선전기의 감로도 도상이 조선후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적 요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

조동섭 기자



보물로 지정된 예고된 '진주 월명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맨 왼쪽부터 안휘준, 문명대, 강경숙, 이성미, 김리나 교수

한국미술사학회 창립 50주년, 원로교수 초청 강의

안휘준 · 문명대 · 강경숙 · 김리나 · 이성미 교수의 '다시 듣는 명강의 시리즈'

한국미술사학을 주도해 온 한국미술사학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고고미술동인회로 출발한 한국미술사학회는 1960년 8월 15일 <고고미술(考古美術)> 창간호를 내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미술사학회의 출범은 전국에 흩어져 있던 기초자료를 발굴하

고 일제 강점기 일본 학자에 의해 편향적으로 연구된 자료의 수정으로 이어졌다. 학회는 창립 반세기 만에 미술사는 정식 학문으로 자리 잡게 했고, 동국대 서울대 고려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등 다수의 대학에 학과가 생겨나 많은 연구자를 배출케 했다. 불교 미술에 대한 대

중적 관심도 높아졌다.

학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10월 29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미술사학회의 인문학적 성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어 11월 1~5일 안휘준 · 강경숙 · 문명대 · 이성미 · 김리나 등 원로 미술사학자들의 '다시 듣는 명강의

시리즈'를 진행했다.

3일 동국대 학술관 307호에서는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통일신라 조각과 석굴암'을, 4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 103호에서는 이성미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미술사는 왜 인문학인가'를, 5일 홍익대 조형관 E동 103호에서는 김리나 홍익대 명예교수가 '동서양의 만남과 미술의 교류'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6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행사도 개최한다.

한국미술사학회 최광호 회장은 "이번 행사는 반세기 한국미술 연구사의 궤적을 살피고, 현재의 좌표를 다시 점검하기 위한 시도이며, 역사학자 등이 참여한 인문학으로 바라본 미술사에 대한 성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나 기자

영문불교학술지 제15호 발간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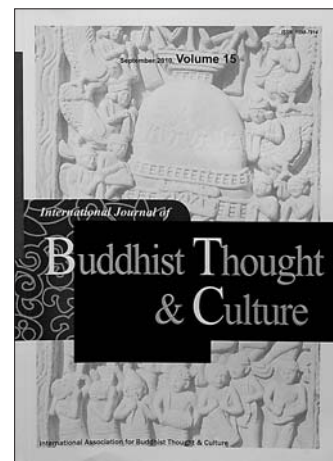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는 영문 불교학술지 IJBTC(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제15집을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헨릭 H 소렌센(덴마크)의 '고려시대 치성광불(熾盛光佛)의 신앙 연구' △박경준 교수(동국대)의 '불교적 관점에서 본 자연' △E.S. 레페코바(러시아)의 '근대 일본의 불교와 신도(新道)의 융합 해석' △이영숙 교수(미국 동일리노이대학)△원혜영 초빙교수(대진대)의 '초기 불교 공동체의 연기

적(緣起的) 성격 △김상순(동국대 박사과정)씨의 '다르마의 사회 윤리적 함의 △정호 후정 저술, 박영의 명예교수(충남대)의 번역본인 '선가귀감(禪家龜鑑) 영역' 등의 논문이 수록됐다.

한편,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불교문화와 사상에 관한 광범위한 이론의 연구와 불교학의 학제간 연구, 국제불교학제와의 학술정보의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학의 세계화와 발전을 목표로 2002년 창립됐다.

학회는 불교문화사상사 관련 연구활동과 발표회 및 강연회, 영문학술지 발간과 연구자료집 발간,



국제 불교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활동, 한국불교학제적 영역사업, 기타 한국불교학의 세계화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어나 기자

지묵스님의 글 모음 보림의 숲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스님의 글을 보면 역시 깊이 있는 내용과 함께 독특한 개성과 진솔함, 해박한 지식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사람을 앞에 두고 말하는 듯 거침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흡인력 있는 문체로 인해 지묵 스님은 언제나 불교계의 신문 잡지에서 그 글을 볼 수 있는 인기 있는 필자입니다.

지묵 스님은 수행정진 틈틈이 글쓰기를 하고 수련회와 방송을 통해 불법의 생활화와 참선을 강조해 온 까닭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발원 때문일 것입니다.

- 죽비 깎는 아침
- 인도순례기 나마스레
- 봉주르, 길상입니다
- 달마와 혜능
- 초발심자경문 강설
- 보충좌선의
- 육조단경 강설
- 산승일기
- 날마다 좋은 날
- 노스님의 젊음
- 비운 뒤에 무성한 조롱박



장흥불교대학 · 보림사 주지 지묵 스님